

일본의 텐쇼 쇼넨 시세츠와 안드레아 가브리엘리의 《16성부 글로리아》 (1585)*

변 혜 련
(명지대학교)

“성 마르코 성당은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였다. 합창단 플랫폼이 새로 세워졌고 이동식 오르간과 그 유명한 두 대의 오르간이 관현악단과 함께 아주 훌륭한 연주를 들려주었다.... 총통이 입장하였고 이어서 일본에서 온 귀족들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미사가 시작되었으며 네 개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가 분위기를 한층 엄숙하게 만들었다....”¹⁾

1585년 6월, 일찍이 페트라르카(Francesco Petrarca, 1304-1374)²⁾가

* 16세기 일본 가톨릭 관련 자료를 구하는 데 도움을 주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강상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베네치아 다중합창음악 관련 문헌을 보내준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오스틴)의 김지훈 선생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 1) “La Chiesa di S. Marco ... che non si poteva mover il passo, et vi si era fatto un palco novo per li cantori, et aggiunto un' organo portatile: acciochè insieme con li notabili di Chiesa, et gli altri stomenti musicali facesse più celebre la armonia, dove intervennero i primi Cantori, et Sonatori, che si ritovino in questa parti. Viene la Illustrissima Signoria (...): vennevi anco i Signori Giapponesi, et così si diede principio alla Messa, cantata in quattro chori con quella solennità, che si ricerca (...).” 프란체스코 산소비노, 『베네치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공화국』(*Venetia citta nobilissima*, 1604), 457-458.
- 2) 중세 이탈리아 인문주의의 대표적 시인이자 학자이다. 페트라르카의 작품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이탈리아어로 쓰인 『시집』(*Canzoniere*)과 『승리 1』(*Trionfi*)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공화국’(La serenissima repubblica)³⁾으로 칭송했던 베네치아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꽤나 시골벽적 했던 것 같다. 외국 손님을 맞을 준비와 기대감으로 나라 전체가 들쭉거렸기 때문이다. 베네치아에서 나라 밖의 국빈을 맞이하는 일은 늘 있었지만 이번은 너무나 특별했다. 주인공이 지구 반 바퀴나 떨어진 지팡구(Zipangu, 일본의 옛말)⁴⁾에서 온 네 명의 니혼진(日本人)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리스도교 세례를 받은 열네 살 정도의 남자아이들이었는데 당시 텐쇼 쇼넨 시세츠(*Tenshō Shōnen Shisetsu*, 天正少年使節, 텐쇼소년사절단)⁵⁾의 공식 직함을 달고 이탈리아 도시들을 순방 중이었다.⁶⁾ 네 명의 소년은 만치오 이토(マンシヨ 伊東, 1570-1612), 미카엘 치지와 (ミゲル 千々石, 1567-1633), 줄리안 나가우라(ジュリアン 中浦, 1568-1633), 마르틴 하라(マルチノ 原, 1568-1639)이며 이들은 규슈섬 나가사키(長崎) 근방을 통치하던 세 명의 크리스천 다이묘(大名)⁷⁾의 영지에서 선발된 귀족의 자제들⁸⁾이었다.

이 두 작품을 제외한 모든 작품은 라틴어로 쓰였다. 페트라르카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박상진, 『이탈리아 문학사』(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3), 85-96.

- 3)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공화국’의 유래와 배경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변해련, “서양음악사에서의 전파기 : 베니스의 신화, 음악, 산마르코 성당,” 『서양음악학』 2 (1999), 93-114.
- 4) ‘지팡구’라는 말은 마르코 폴로(Marco Polo, c. 1254-1324)가 『동방견문록』(*Travels*, 1299)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베네치아 출신의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는 일본을 서양에 처음 소개하였다.
- 5) ‘텐쇼’(天正)는 1582에서 1590년까지 사용된 연호(年號)로 제106대 오기마치천황(正親町天皇, 1557년부터 1586까지 재위)과 제107대 고요제이 천황(後陽成天皇, 1586년부터 1611년까지 재위)이 보위에 있던 시기이다.
- 6)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텐쇼 쇼넨 시세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 문헌을 참조하였다. Michael Cooper, *The Japanese Mission to Europe, 1582-1590 (The Journey of Four Samurai Boys Through Portugal, Spain and Italy)* (Waikiki: University of Hawaii, 2005).
- 7) 이들은 오토모 소린(大友宗麟, 프란시스, 1530-1587), 오무라 스미타다(大村純忠, 바로톨로메오, 1533-1587), 아리마 하루노부(有馬晴信, 프르타시우스, 1567-1612)이다. 이들은 나가사키의 분고(豊後, 소린), 아리마(有馬, 하루노부), 오무라(大村, 스미타다) 지역을 통치하였다. Cooper, *The Japanese Mission to Europe, 1582-1590*, 13.
- 8) 산소비노는 이들이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Signori”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남성에게 사용하는 극존칭으로 영어의 ‘Sir’에 해당한다.

네 명 중에서 공식 대표는 이토, 치지와 두 명이었고⁹⁾ 나카우라, 하라는 이토와 치지와외의 외로움을 달랠 친구 자격으로 동행하였다.

텐쇼 쇼넨 시세츠는 일본이 유럽에 파견한 최초의 일본인 사절이다. 하지만 이들을 파견한 주체는 일본 정부가 아니라 당시 일본에서 그리스도교 선교활동을 하던 예수회 알레산드로 발리냐노 신부(Alessandro Valignano, S.J.,¹⁰⁾ 1539-1606)이다.¹¹⁾ 일본의 그리스도교는 1549년 예수회 프란시스 자비에르 신부(Francis Xavier, S.J., 1506-1552)가 규슈 가고시마에 입국하면서 시작되었는데 당시 일본은 명장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1582)가 센코쿠시대(戰國時代)를 종식하면서 차츰 안정을 찾고 있었다.¹²⁾ 특히 노부나가는 서양에 우호적이었고 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당시 유럽에서 건너 간 예수회 신부들은 순조롭게 선교활동을 할 수 있었고 신자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었다. 텐쇼 쇼넨 시세츠가 파견된 1580년대 초반 일본의 키리스탄(キリシタン, 일본의 그리스도교 신자를 일컫는 말) 숫자는 10만 명을 상회할 정도였다. 텐쇼 쇼넨 시세츠를 기획한 발리냐노 신부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1573년 약관 34세에 포르투갈이 장악했던 동남아시아의 예수회 순찰사(Visitor)로 발탁되었고 1579년 일본에 입국하여 포교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가 텐쇼 쇼넨 시세츠를 파견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교황 그레고리오 13세(Pope Gregory XIII, 1502-1585)와 스페인의 국왕 필립2세(Philip II, 1527-1598)에게 일본에서의 성공적인 포교활동을 보여주어 재정적 지원을 얻는 것이었다. 둘째는 일본의 어린 10대 소년들이 유럽의 찬란한 그리스도교 문화를 보면서 신앙심을 키우고 서양인에 대한 경계심을 누그러뜨려 향후 포교 활동에 보탬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9) 세 명의 다이묘 중에서 이토는 소린의 단독 대표였고 치지와는 하루노부와 스미타다의 공동 대표였다. Cooper, *The Japanese Mission to Europe, 1582-1590*, 13.

10) S. J.는 Societas Jesu(예수회 신부)의 약자이다.

11) 발리냐노 신부의 일본에서의 선교활동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하십시오. 김삼근, “프란씨스코 데 까브랄과 알레산드로 발리냐노의 16세기 예수회 일본 선교정책”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73 (2006), 8-10.

12) 정현숙 외 1인, 『일본학 개론』(서울: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139-150.

텐쇼 쇼넨 시세츠는 발리냐노 신부와 함께 1582년 2월 20일 나가사키 항을 출발하였다. 하지만 일행이 마카오와 말라카를 거쳐 인도 고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발리냐노는 인도의 예수회 감독으로 새로운 직분을 받게 된다. 실망을 금할 수 없었고 로마 본부에 강하게 항의도 했지만 결국 발리냐노 신부는 인도에 남게 되고¹³⁾ 소년들은 하는 수 없이 발리냐노가 임명한 지도신부 예수회 디오고 데 메스퀴타 신부(Diogo de Mesquita, S. J., 1553-1614)와 함께 여정을 계속하게 된다.¹⁴⁾ 이후 소년들과 일행은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과 세인트 헬레나¹⁵⁾를 거쳐 1584년 8월 10일 포르투갈의 리스본 항에 도착하였는데 이는 실로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을 모두 거치는 2년 6개월의 기나긴 항해를 무사히 끝낸 것이었다. 소년들이 리스본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포르투갈의 고위 관리들과 성직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들은 이곳에서 성지를 돌아보고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2개월 남짓 체류하였다. 1584년 11월 14일 텐쇼 쇼넨 시세츠는 첫 번째 공식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당시 유럽의 최고 권력자인 스페인의 국왕 필립2세를 알현하였다. 이때 소년들은 전통의상인 기모노(着物)를 입었으며 사절단의 공식 대변인이었던 이토가 일본에서 다이묘가 보낸 선물을 증정하였다. 필립2세는 기모노를 손수 만져보는 등 호기심을 감추지 않았고 이들을 최고 극빈으로 대우하였다. 소년들이 마드리드를 떠날 때는 현금과 선물을 가득 안겨준 것은 물론 로마 주재 스페인 대사에게 소년들의 일신을 당부하는 편지를 손수 작성하여 전하게 하였고 이들이 지나 갈 도시의 권력자들에게도 일일이 소개장을 써주었다. 당시 지구상에 존재했던 최고 권력자의 이런 세심한 배려와 호의가 소년들의 여정에 어떻게 작용했을 지 굳이 첨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텐쇼 쇼넨 시세츠와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의 만남은 1585년 3월 23일 로마 교황청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소년들이 기모노를 입고 지나갔던

13) Cooper, *The Japanese Mission to Europe, 1582-1590*, 37.

14) 디오고 데 메스퀴타 신부는 소년들의 멘토 겸 보호자 겸 통역사로 동행하였다.

15) 아프리카 서쪽 대서양에 위치한 세인트헬레나 섬은 나폴레옹이 1815년 6월 18일 워털루전쟁에서 영국, 네덜란드, 프러시아의 연합군에 패한 뒤 생포되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유배되었던 섬으로 유명하다.

성 베드로 광장은 구경꾼들과 고위 성직자, 귀족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이날도 역시 대변인 이토가 교황에게 다이묘의 서찰과 선물을 전달하였고 여기에는 노부나가가 보낸 아즈치성(安土城)¹⁶⁾을 수놓은 병풍도 포함되었다. 교황은 이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며 예수회의 아시아 선교 활동을 아낌 없이 지원할 것을 천명하였다. 하지만 그레고리우스 13세는 이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서거하였고¹⁷⁾ 뒤를 이어 식스투스 5세(Pope Sixtus V, 1521-1590)가 보위에 올랐는데, 새 교황 역시 소년들에게 관심과 호기심을 보였고 즉위식에서 교황이 탄 가마의 카노피를 직접 드는 영예를 부여하였다. 식스투스 5세가 전임 교황의 유지가 그대로 지켜질 것을 약속한 것은 물론이다. 소년들이 로마에서 공식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탈리아의 각국 대사들은 이들을 자신들의 고향에 데려가기 위하여 치열한 외교 작전을 벌였고 그 결과 소년들은 공식 일정이 끝난 뒤에 귀국길에 오르지 못하고 이탈리아 도시를 순방하게 된다. 먼저 아시시, 볼로냐, 페라라를 방문하였는데 이때도 역시 가는 곳마다 최고의 대접을 받았으며 이들이 탄 말과 마차가 지나가는 곳은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1585년 여름 이탈리아 반도는 일본에서 온 네 명의 슈퍼스타들로 그야말로 몸살을 앓았다.

베네치아 시민들도 흥분과 호기심으로 고조되어 있었다. 마침내 6월 26일 네 명의 일본 소년이 베네치아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들은 7월 6일까지 열흘 남짓 이곳에 머물렀다. 국민 환영 행사에 국가의 존망을 걸 정도로 공을 들였던 베네치아는 일본 사절단을 위한 행사가 다른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¹⁸⁾ 총통(Doge)의 개인 예배당인

16) 아즈치성은 혼수(本州) 시가현(滋賀縣)에 위치한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인 비와호(琵琶湖) 동쪽에 있었다. 오다 노부나가 지하1층 지상6층으로 건축하였는데 화려한 천수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유럽의 어떤 성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화려하고 멋스러웠다고 한다.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17) 그레고리우스 13세는 4월 10일 서거하였는데 오래 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는데 건강이 날로 악화되어 소년들과의 만남을 서둘러 주선하였다.

18) 베네치아 공화국은 주요 국빈을 맞이하는 행사를 국가의 이미지와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정치적 기회로 이용하였고 이를 통하여 '베네치아 신화'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하시오. 변혜련, "서양음악사에서의 전환기:

성 마르코 성당 음악가들이 행사음악을 준비하는 데 총동원되었고 당시 베네치아 악파의 실질적 리더였던 안드레아 가브리엘리(Andrea Gabrieli, 1533-1585)는 생을 마감하기 전 자신의 역량을 한 번 더 끌어올릴 마지막 기회를 맞았다. 텐쇼 쇼넨 시세츠가 도착한 지 사흘 뒤인 6월 29일에 성 마르코 성당에서 공식 환영 미사가 열렸으며 전례가 진행되는 동안 성 마르코 합창단과 합주단이 연주하는 화려하고 웅장한 음악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특히 이날의 미사를 위해서 안드레아 가브리엘리는 다중합창 미사 곡을 완성하였는데 그중에서도 《16성부 글로리아》는 당시에 코리 스페짜티(*cori spezzatti*)의 성지인 베네치아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곡이었다. 이 곡의 웅장함과 위엄은 이날 미사에 참석했던 16세기 베네치아 역사의 산증인 프란체스코 산소비노(Francesco Sansovino, 1521-1586)에 의해 후세에 전해지고 있다.¹⁹⁾

미사가 끝난 뒤에는 성 마르코 발현 축일(the Feast of the Apparition of St. Mark) 기념행렬이 성 마르코 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원래 성 마르코 발현 축일은 6월 25일이었지만 이 해는 일본 귀빈들의 방문 일정에 맞춰 나흘 늦게 거행되었다. 마침 6월 29일이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축일(the Days of Saints Peter and Paul)이기도 했고 갈색 눈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베네치아의 찬란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장밋빛 미래를 과시하기에 이 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음을 충분히 감안한 전략이었다. 행렬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장 7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여기에는 정부의 고위층 인사들이 대거 참가하였으며 베네치아의 온갖 유물이 진열되었다. 행렬이 진행되는 동안 성 마르코 음악가들은 물론 베네치아의 스쿠올라 그란데(Scuola Grande)²⁰⁾까지 가세하여 끊임없이 음악을 연주하였

베니스의 신화, 음악, 산마르코 성당.” 93-103.

19) 주석 1의 인용문을 참조하십시오.

20) 베네치아 평신도들의 종교봉사단체(Confraternity)이다. 16세기 베네치아에는 모두 6개의 스쿠올라 그란데가 있었다: 스쿠올라 델라 카리타(Scuola della Carità), 스쿠올라 디 산 죠반니 에반젤리스타(Scuola di San Giovanni Evangelista), 스쿠올라 델라 미제리코르디아(Scuola della Misericordia), 스쿠올라 디 산 마르코(Scuola di San Marco), 스쿠올라 디 산 로코(Scuola di San Rocco), 그리고 스쿠올라 디 산 테오도로(Scuola di San Teodoro)가 그것이다.

다. 이 날 성 마르코 광장은 그야말로 눈과 귀가 더 이상 호시할 수 없을 정도의 볼거리, 들을거리로 넘쳐났다. 이 모든 진풍경을 보고 들으면서 일본의 어린 소년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상상하면 왠지 웃음이 난다. 그들의 표정은 분명 다른 어떤 국가에도 뒤지지 않을 장관과 음악으로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베네치아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음을 확인시켜주었을 것이다. 16세기 베네치아의 최고 화가 중 한명인 틴토레토(Tintoretto, 1518-1594)²¹⁾는 만치오 이토의 초상화를 후세에 남겼다.²²⁾

베네치아 방문을 마친 후 소년들은 파두아, 만투아, 밀란, 제노바 등을 돌면서 이탈리아 투어를 계속하였으며 일정이 끝난 뒤에는 스페인으로 돌아가 필립2세와 재회하였다. 그와의 두 번째 만남은 국왕 자신이 요청하였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소년들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필립2세는 여전히 이들을 극진히 대접하였고 그 동안의 여행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보는 등 호감을 숨기지 않았다. 텐쇼 쇼넨 시세츠는 스페인을 떠나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1586년 4월 8일 귀국길에 올랐는데 이는 유럽에 도착한 지 1년 9개월만이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400년도 훨씬 전의 이와 같은 행보는 부러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일으킨다. 이 옛날 유럽으로 건너가 가는 곳마다 각국

이들 스쿠올라는 다양한 앙상블과 오르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성 마르코 성당의 오르가니스트와 악기 연주자들이 이곳에서 겸직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어 6개 스쿠올라 중에서 가장 권위있고 재정이 풍부했던 스쿠올라 산 로코는 성 마르코 성당의 오르가니스트인 죠반니 가브리엘리를 고용하고 있었다. 당시 베네치아에서 스쿠올라 산 로코는 성 마르코 성당 다음으로 중요한 음악기관이었다. 16세기 베네치아의 스쿠올라 그란데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하시오. Jonathan Glixon, *Honoring God and the City: Music at the Venetian Confraternities, 1260-1807*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21) 틴토레토는 티치아노(Veccellio Tiziano, 1488/1490-1576)와 베로니스(Paolo Veronese, 1528-1588)와 함께 16세기 베니스를 대표하는 화가이다. 이들 세 명의 베네치아 화가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하시오. David Rosand, *Painting in Sixteenth-Century Ven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22) Derek Marsarella, "Appendix: The Discovery of the Missing Portrait of Mancio Itō, One of the Japanese Ambassadors," *The Journal of the Hakluyt Society* (2014), 1-3.

의 최고 권력자들로부터 극빈 대우를 받으며 유럽 전방에 일본 열풍을 일으킨 네 명의 소년들을 현재의 일본인들조차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며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장정 400주년을 맞아 나가사키에 이들의 동상이 건립되고 기념엽서와 우표가 발행되었으며 스페인의 국왕부부 앞에서 기념행사가 열리기도 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피렌체에서 이탈리아 방문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개최되었다.²³⁾ 흥미로운 사실은 텐쇼 쇼넨 시세츠를 기획했던 발리냐노 신부는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바라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예수회 신학교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10대 초반의 어린 소년임을 감안하여 교육적인 측면에서 유럽의 사적인 공간은 가능하면 보여주지 말도록 현지 관계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신부의 바람은 무참히(?) 깨졌고 설령 그랬더라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다.

텐쇼 쇼넨 시세츠가 당시 유럽에서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데는 지구 반대편에서 온 갈색 눈의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호기심에 기모노를 입은 일본인 특유의 공손함이 중요하게 작용했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이면에는 각국의 손익계산이 깔려 있었다. 필립2세, 교황, 베네치아 공화국 모두에게 텐쇼 쇼넨 시세츠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켰다. 당시 필립2세는 각 대륙에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아시아에서는 그의 이름을 딴 필리핀까지 식민지로 획득하였다. 이러한 차제에 그가 일본을 다음 먹잇감으로 보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텐쇼 쇼넨 시세츠는 국내 정치의 국면전환 기회도 제공하였다.²⁴⁾ 1581년 필립2세는 포르투갈 왕위계승 싸움에 끼어들었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밀어붙여 포르투갈의 필립1세 왕으로 등극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포르투갈 국민

23) 음악회 타이틀은 “Tenshō Shōnen Shisetsu: The Italian Tours of Four Japanese Youths in 1585”이었고 이는 피렌체에 있는 미국 하바드(Harvard)대학교 부설 이탈리아 르네상스 연구소인 비야이타티(Villa I Tatti)가 주최한 것이다. 음악회 프로그램은 소년들이 방문했던 여섯 개 도시(피렌체, 로마, 페라라, 베네치아, 비첸차, 만토바)와 마지막의 “스페인으로(Towards Spain)”으로 세분화되었고 음악회에서는 각 지역과 관련이 있는 르네상스 작곡가들의 성악곡이 연주되었다.

24) Cooper, *The Japanese Mission to Europe, 1582-1590*, 168.

들의 저항이 거셌다. 이에 필립2세는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는 교활함을 발휘하였다. 텐쇼 쇼넨 시세츠는 당시 아시아 선교활동을 장악했던 포르투갈 예수회가 파견했기 때문에 이들을 극진하게 대접함으로써 포르투갈 교회에 힘을 실어주는 정치적 제스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교황에게도 일본은 기회의 땅이었다.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하루하루 위세가 위축되었던 로마 가톨릭은 아시아로 눈을 돌려 이미 필리핀, 마카오, 고아 등지에 뿌리를 내렸고 이제 일본이 바로 저 너머에 있었다.²⁵⁾ 베네치아 공화국은 로마와의 관계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베네치아는 1573년 4월 레판토 해전 (the Battle of Lepanto)²⁶⁾이 끝난 뒤에 터키와 단독으로 조약을 맺었는데 이에 전임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13세가 크게 격노하면서 로마와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그러던 차에 새 교황이 보위에 오른 것을 기회로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던 것이다.²⁷⁾

필자가 텐쇼 쇼넨 시세츠의 존재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건 유학 시절 수강했던 <르네상스 베네치아 음악 세미나>(Seminar on Renaissance Venetian Music)에서이다. 세미나에서 베네치아의 전례음악 중에 일본인을 위해 완성된 곡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던 기억이 있다. 왜냐하면 당시 베네치아의 전례음악은 이 곡을 제외하면 모두가 국내 행사나 서양의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옛날 일본인들이 이곳에 왔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했다. 학우들은 세미나의 유일한 동양인이었던 필자에게 뭔가를 기대했지만 실망만 안겼을 뿐이다. 이에 관해 좀 더 연구해 보고 싶었지만 사정상 그러지 못했고 이들의 존재는 강산이 두 번 바뀌도록 기억의 저편에 남아 있었다. 그러던 차제에 우연한 기회를 통해 그동안 묵혔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20여 년 전의 궁금증을 풀어보

25) Cooper, *The Japanese Mission to Europe, 1582-1590*, 167.

26) 1571년 10월 7일 베네치아, 로마, 사보이, 스페인 등의 연합함대는 터키가 점령한 키프로스 섬을 빼앗기 위해 이오니아 해의 그리스 해안에서 터키의 오스만 제국 함대와 전쟁을 벌여 승리하지만 2년 뒤 이 전쟁의 최종 승자는 터키로 끝나게 된다. 이를 레판토 해전이라 한다. 1571년 레판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열린 베네치아 공화국의 축하 행사에 관해서 변혜련, “서양음악사에서의 전환기: 베니스의 신화, 음악, 산마르코 성당,” 108-109.

27) Cooper, *The Japanese Mission to Europe, 1582-1590*, 167-168.

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서양음악사에서 일본이 부각되는 시기는 20세기 초 낭만주의가 저물고 유럽의 작곡가들이 비유럽 문화권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서부터이다.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성공시키면서 근대국가로 탈바꿈하였고 서양과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하면서 유럽 사회에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당시 유럽인들은 자포니즘(Japonism)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일본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음악에서도 일본인을 소재로 하거나 일본 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곡들이 많이 완성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지아코모 푸치니(Giacomo Puccini, 1858-1924)의 일본 게이샤의 사랑을 그린 오페라 《나비부인》(*Madama Butterfly*, 1904), 클로드 드뷔시(Claude Debussy, 1862-1918)의 호쿠사이(Katsushika Hokusai, 1760-1849)²⁸⁾의 채색판화²⁹⁾에서 영감을 얻은 교향곡³⁰⁾ 《바다》(*La mer*, 1905), 이고르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 1882-1971)의 일본 시에 음악을 붙인 《3개의 일본 가곡》(*Three Japanese Lyrics*, 1913)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20세기 초의 시대적 흐름과 비교했을 때 1585년 베네치아에 등장한 텐쇼 쇼넨 시세츠는 르네상스 말기에 있었던 하나의 흥미로운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에피소드 때문에 당시 서양음악을 이끌어간 베네치아 악파의 실질적 리더였던 안드레아 가브리엘리가 자신의 최고 걸작인 《16성부 글로리아》를 탄생시켰다면 이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

《16성부 글로리아》는 안드레아 가브리엘리가 성 마르코 성당의 제1 오르가니스트로 재직하던 시기에,³¹⁾ 여생이 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

28) 도쿠가와(徳川) 막부가 통치했던 에도시대(1603-1867) 말기의 화가로 우키요에(浮世絵, 채색판화)의 대가이다.

29) 호쿠사이의 대표작은 《후지산의 36개 정경》(富嶽三十六景)인데 이 작품은 후지산의 사계절 풍경을 36개의 채색판화로 표현한 것이다. 드뷔시의 《바다》는 이 작품의 첫 번째 판화인 〈가나가와의 거센 파도〉(神奈川沖浪裏)에서 영감을 얻어 완성된 곡이다.

30) 드뷔시가 남긴 자필 악보에는 “Three Symphonic Sketches for Orchestra”라고 쓰여 있다.

에 완성하였다. 가브리엘리는 작품이 완성되기 서너 달 전부터 앓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곡을 쓸 당시에는 병든 몸을 지탱하며 마지막 예술혼을 불태웠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그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것도 병마와 싸웠던 고통의 순간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이유이다. 안드레아 가브리엘리는 생전에 베네치아의 종교적, 세속적 행사를 위해 수많은 다중합창음악을 완성했지만 《16성부 글로리아》같은 대규모 곡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16성부 글로리아》는 그가 남긴 유일한 4개 합창단을 위한 16성부 곡인 것이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상상해 본다. 첫째는 작곡가 스스로 네 개 합창단으로 네 명의 일본인을 상징하기를 원했을 수 있다. 둘째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밀리지 않는 최대한 화려하고 웅장한 곡을 내놓으라는 정부의 압박이 있었을 수 있다. 국가 공무원이었던 안드레아 가브리엘리에게 상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르네상스 말기 서양음악의 일변지였던 베네치아의 작품이 탄생하는 데 지구 반 바퀴나 떨어져 있는, 당시에 배로 2년하고도 수개월이나 걸려야 갈 수 있었던 일본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가 영향을 끼친 사실이다. 노부나가가 개방 정책을 펴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교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텐쇼 쇼넨 시세츠가 베네치아에 가지 않

31) 안드레아 가브리엘리가 성 마르코 성당에서 맡은 공식 직책은 제1오르가니스트(1565-1584)와 제2오르가니스트(1584-1585)였지만 당시 성 마르코 성당의 성가대장(Maestro di Cappella)인 조세포 짜를리노(Gioseffo Zarlino, 1517-1590)가 이론가여서 작곡보다는 교육과 집필활동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안드레아 가브리엘리가 짜를리노 대신 전적으로 작곡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었다. 베네치아 공화국의 행사에서 연주될 작품은 전통적으로 성 마르코 성당 성가대장의 책임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짜를리노의 전임자인 아드리안 빌레르트(Adrian Willaert, 1490-1562)이다. 플랑드르 지방 출신인 빌레르트는 1527년 성 마르코 성당에 성가대장으로 부임하여 1562년 생을 마칠 때까지 35년을 봉직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작품을 완성하고 후학들을 양성하여 베네치아 악파의 토대를 닦았다. 빌레르트의 후임이었던 치프리아노 데 로레(Cipriano de Rore, 1516-1565)도, 비록 1년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성 마르코 성당에 재직하는 동안 성가대장으로 작품을 완수하는데 주력하였다. 하지만 짜를리노는 이론가로서 작곡 능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짜를리노의 짐을 나눠 질 사람이 필요했고 안드레아 가브리엘리가 그 몫을 담당하였다. 짜를리노는 1565년부터 생을 마감하는 1590년까지 25년 동안 성 마르코 성당의 성가대장으로 봉직하였다. 성 마르코 성당 성가대장의 역할에 관하여, 변해런, “서양음악사에서의 전환기: 베니스의 신화, 음악, 산마르코 성당,” 95-103.

았다면, 《16성부 글로리아》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이후의 서양음악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16성부 글로리아》는 작곡가의 조카이자 수제자였던 죠반니 가브리엘리(Giovanni Gabrieli, 1554/1557-1612)가 《콘체르티》(*Concerti*, 1587)에 편집을 거쳐 출판하였는데³²⁾ 백부의 작곡기법을 누구보다 열심히 탐구했을 죠반니는 이후 그 규모와 화려함에서 안드레아를 능가하는 다중합창곡을 많이 완성하여 베네치아 악파의 황금기를 이끌었다<도표 1>.³³⁾ 《16성부 글로리아》이후, 안드레아 가브리엘리 사후, 베네치아의 다중합창 음악이 더욱 화려하고 웅장해졌으며 이러한 음악적 변화가 결국 르네상스를 넘어 바로크로 진입하는 동력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텐쇼 쇼넨 시세츠의 중요성은 《16성부 글로리아》에 국한되기보다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의미 있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³⁴⁾ 서양음악의 본류가 극동의 작은 섬나라에서 시작된 한줄기 물살로 물꼬를 터가는 과정은 우연이 필연이 되는 역사의 진리를 보여줄 뿐 아니라 하나의 현상은 모든 앞선 것의 결과라는 명제도 드러내고 있다.

32) 《콘체르티》에는 1585년 환영미사에서 연주되었던 《기리에》와 《상투스》도 함께 출판되었다. 이 두 곡은 12성부의 다중합창곡이다.

33) 이에 관하여 Dennis Arnold, *Giovanni Gabrieli and the Venetian High Renaissance*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34) 안드레아와 죠반니 가브리엘리의 다중합창곡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논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계획이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전체적인 흐름만 제시한다.

〈도표 1〉 안드레아와 죠반니 가브리엘리의 다중합창 종교적 성악곡 비교³⁵⁾

성부	안드레아	죤반니	성부	안드레아	죤반니
4	40여 곡 ³⁶⁾	1	13	0	2
5	28	0	14	0	6
6	60여 곡 ³⁷⁾	13	15	0	7
7	9	10	16	1	5
8	14	33	17	0	2
9	0	0	18	0	1
10	3	11	19	0	2
11	0	1	20	0	2
12	6	18	33	0	1

마지막으로 텐쇼 쇼넨 시세츠에 참가했던 소년들의 이후 행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다.³⁸⁾ 소년들은 리스본에서 귀국길에 올라 2년 4개월 뒤인 1588년 8월 17일 마카오에 도착하였다. 마카오에서 일본 나가사키까지는 배로 2주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소년들은 이곳에서 10달 정도를 기다려야 했다. 왜냐하면 노부나가가 죽은 뒤에 권력을 쟁취한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27-1598)가 1587년 일본에서 활동하던 예수회 신부들을 추방하고 그리스도교를 탄압하면서 소년들의 귀국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마카오에서 히데요시의 허락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던 소년들은 11개월만인 1590년 7월 21일 비로소 나가사키에 도착하였다.

35) 작품 개수는 David Bryant의 “Gabrieli, Andrea”와 “Gabrieli, Andrea”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ed. by Stanley Sadie (2001)를 참고하였다. 작품의 숫자에서 다소의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 해도 전체적인 윤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36) 미사곡의 개별 악장을 한 개로 계산하였는데 미사곡의 악장 수가 정확히 몇 개인지 알 수 없어 미사 한 곡 당 4-5개 악장으로 추정하였다. 안드레아 가브리엘리는 4성부 미사곡을 두 개 완성하였다.

37) 주석 33과 같은 이유다. 안드레아 가브리엘리가 완성한 6성부 미사곡은 모두 네 개다.

38) Cooper, *The Japanese Mission to Europe, 1582-1590*, 180-192.

실로 8년 5개월 만에 집에 돌아온 것이다. 다음해인 1591년 3월 3일 네 명의 소년들은 교토(京都)에서 히데요시를 만났으며 히데요시 앞에서 하프, 클라비코드, 루트, 바이올린의 4중주를 연주하였다. 이때 히데요시는 이들에게 자신의 가신(家臣)이 될 것을 종용하였지만 소년들은 히데요시의 청을 거부하고 모두 예수회 교단에 입회하였고 이후 미카엘 치지와³⁹⁾를 제외한 세 명은 마카오에서 신학을 공부한 뒤 1608년 나가사키에서 사제로 서품되었다. 이 중에서 줄리안 나카우라는 그리스도교 탄압을 피하지 못하고 순교하였다.⁴⁰⁾ 네 명의 소년은 살아가는 동안 로마에 갔다 온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한다. 하지만 현세에 이들이 로마에 갔던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소수의 일본인을 제외하면 많지 않을 것 같다. 대신 역사는 그들이 로마보다는 베네치아에 갔다 온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왜냐하면 베네치아의 한 작곡가가 그들을 위해 작품을 완성하였고 그 곡이 역사에 길이 남았기 때문이다. 소년들이 생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로마가 아닌 베네치아에 갔다 온 것을 더 자랑스러워 했으리라. 분명 지금 천국에서 성녀 체칠리아가 이들을 보호하고 계실 것이다.⁴¹⁾

한글검색어: 일본, 텐쇼 쇼넨 시세츠, 베네치아 악파, 안드레아 가브리엘리, 다중합창음악

영문검색어: Japan, Tensho Shonen Shisetsu, Venetian School, Andrea Gabrieli. Polychoral Music

39) 치지와는 후에 결혼하여 네 명의 아들을 두었다.

40) 나카우라는 1633년 10월 18일 나가사키에서 7명의 가톨릭 신자들과 함께 순교하였다. Cooper, *The Japanese Mission to Europe, 1582-1590*, 191.

41) 로마 가톨릭에서 성녀 체칠리아는 음악의 수호성인이다.

참고문헌

- 김삼근. “프란씨스코 데 까브랄과. 알레산드로 발리냐노의 16세기 예수회 일본 선교정책.”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73 (2006): 8-10
- 박상진. 『이탈리아 문학사』. 부산 :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3.
- 변혜련. “베니스의, 베니스에 의한, 베니스를 위한 : 17세기 초기 베네치아 오페라에 나타난 민족주의 성향.” 『이화음악논집』 14/2 (2012): 2-17.
- _____. “20세기 서구 음악학계의 실증주의 연구 사례.” 11 (2006): 79-97.
- _____. “서양음악사에서의 전환기 : 베니스의 신화, 음악, 산마르코 성당.” 『서양음악학』 2 (1999): 93-114.
- _____. “Modal Structure in Sixteen Instrumental Works from Giovanni Gabrieli’s *Sacrae Symphoniae* (1597).” Ph.D. Diss., Rutgers University, 1994.
- 정현숙, 강상규, 이영, 정진성. 『일본학 개론』. 서울: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 Arnold, Dennis. *Giovanni Gabrieli and the Venetian High Renaissance*.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 Bosi, Kathryn. “Prologue to Programme.” For *Tenshō Shōnen Shisetsu: The Italian Tour of Four Japanese Youths in 1585*. 2012년 6월 14일. Florence: Villa I Tatti.
- Bryant, David. “Gabrieli, Andrea.”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Edited by Stanley Sadie and John Tyrrell. Second edition. London: Macmillan Publishers, 2001. 9권: 384-390.
- _____. “Gabrieli, Giovanni.”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Edited by Stanley Sadie and John Tyrrell. Second edition. London:

Macmillan Publishers, 2001. 9권: 390-396.

Cooper, Michael. *The Japanese Mission to Europe, 1582-1590*.

Waikiki: University of Hawaii, 2005.

_____. "Spiritual Saga: The Japanese Mission to Europe. 1582-1590." In Francis Britto's *All about Francis Xavier* (1982): 1-10.

Massarella, Derek. "Japanese Travellers in Sixteenth-Century Europe. A Dialogue Concerning the Mission of the Japanese Ambassadors to the Roman Curia (1590)." *The Journal of the Hakluyt Society* (2014): 1-13.

_____. "Appendix: The Discovery of the Missing Portrait of Mancio Itō, One of the Japanese Ambassadors." *The Journal of the Hakluyt Society* (2014): 1-3.

_____. "Revisiting Japan's 'Christian Century.'" *Casahistoria* (2008): 1-12.

Rosand, David. *Painting in Sixteenth-Century Ven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Wright, A. D. Review of "Japanese Travellers in Sixteenth-Century Europe. A Dialogue Concerning the Mission of the Japanese Ambassadors to the Roman Curia (1590)." *The 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 65 (2004): 197-198.

Yoshioka, Masaka. "Singing the Republic: Polychoral Culture at San Marco in Venice (1550-1615)." Ph.D. Diss. University of North Texas, 2010.

국문초록

일본의 텐쇼 쇼넨 시세츠와 안드레아 가브리엘리의 《16성부 글로리아》 (1585)

변혜련

안드레아 가브리엘리의 《16성부 글로리아》는 1585년 6월 베네치아를 방문한 일본 <텐쇼 쇼넨 시세츠>의 환영 미사를 위해 작곡되었다. 안드레아 가브리엘리는 《16성부 글로리아》를 완성한 지 두 달 뒤 유명을 달리하였으며 이 곡은 2년 뒤인 1587년에 그의 조카이자 수제자였던 쇼반니 가브리엘리가 『콘체르티』(*Concerti*)에 출판하였다. 이 곡은 안드레아 가브리엘리가 남긴 유일한 네 개 합창단을 위한 16성부 곡으로 당시에는 다중합창 음악의 성지인 베네치아에서조차 보기 드문 대규모 곡이었다. 안드레아 가브리엘리 사후 쇼반니 가브리엘리는 더욱 화려하고 웅장한 다중합창음악을 완성하여 베네치아 악파의 황금기를 이룩하였는데 이러한 업적은 《16성부 글로리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텐쇼 쇼넨 시세츠>의 실체와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16세기 말 베네치아 음악이 동시대 일본의 종교, 정치, 외교, 문화에 의해 움직이는 흥미로운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Abstract

Japan's *Tenshō Shōnen Shisetsu* and
Andrea Gabrieli's *Sixteen-Part Gloria* (1585)

Hye Lyun Pyun

Andrea Gabrieli's *Sixteen-Part Gloria* was composed for the mass held on June 1585 for Japanese Ambassadors called *Tenshō Shōnen Shisetsu*. Andrea Gabrieli died about two months after he completed the *Gloria* and the piece was published in *Concerti* (1587) by Giovanni Gabrieli, his best student as well as nephew. The *Gloria* is the only four-choir sixteen-part work left by Andrea Gabrieli. What is of further importance is the fact that, after Andrea Gabrieli's death, Giovanni Gabrieli's polychoral music became more extravagant and contributed to achieving the peak of Venetian Renaissance. This is why *Tenshō Shōnen Shisetsu* deserves the attention. By investigating the role and impact of *Tenshō Shōnen Shisetsu*, this paper attempts to show how late sixteenth-century Venetian music had been influenced by contemporary Japan.

[논문투고일: 2015. 2. 28]

[논문심사일: 2015. 3. 20]

[게재확정일: 2015. 3. 27]